

## 총의치에 있어서의 구치부 인공치 배열의 역할

경희대학교 보철학교실 이 석 형

총의치 제작시에는 예비인상, 변연인상, 최종인상, 수직 및 수평 악간관계, 인공치 배열 및 교합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중 어느 한가지라도 소홀히 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잘 맞는 총의치를 시술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의치 제작시에 인상과 악간관계에 대하여는 신중히 고려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나, 인공치 배열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을 일반 임상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인공치 구치부의 수평적인 위치관계의 잘못으로 의치의 사용에 문제를 야기시킨 증례를 발표하고자 한다.

본 환자는 10여년 전에 제작한 총의치의 불안정을 주소로 하여 내원한 70세된 여성 환자로서 전신적으로 매우 건강하며 상악하 잔존치조제 관계 및 연조직상태등이 양호하고 치료에 대한 환자의 협조도가 좋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치료가 종결되리라 생각하여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총의치 제작을 시행하였다. 총의치를 완성하여 환자에게 장착한 결과 비교적 만족한 상태로 총의치 치료가 종결되었다. 그러나 일주일 후 환자가 내원하여 혀의 불편감과 상악 협측 소구치 부위의 food impaction 및 협측 제 2대구치 부위의 cheek bite를 호소하였다.

환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검사를 한 결과 의치의 지지, 유지, 교합고경, 교합면 접촉상태 및 악간 관계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구치부의 인공치가 너무 설측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졌으며 최후방 구치부의 수평 피개가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인공치의 부적절한 위치관계로 인하여 tongue space의 부족을 야기시킨 결과 tongue의 lateral border의 불편감(동통)을 일으켰고, 상악 소구치부의 협측으로 음식물의 정체가 일어난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었으며, cheek bite는 최후방 구치의 수평피개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환자의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치의 재배열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구강내의 인공치의 위치관계를 검사하기로 하였다.

우선 silicone인상재를 이용하여 의치의 협설연마면에 loading하여 cheek 및 tongue운동을 시키면서 인상재가 경화된 후의 인상재를 검사한 결과 인공치의 설면의 소구치부는 인상재로부터 많이 노출 되었으며, 협면의 소구치부는 상당한 두께의 인상재가 인공치를 덮고 있었고 최후방 구치는 상악의 협측 표면이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노출부의 치아를 삭제하면서 반복 실시하였더니 인공치의 수평적 위치가 소구치부는 협측으로, 최후방 구치는 설측으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인공치 재배열의 지침으로 하여 하악 구치를 중심으로 상악 구치배열을 실시하였다. 하악 구치를 먼저 배열하는 이유는 하악의 안정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과 tongue space를 부여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때 상악 전치와 상악 구치의 불일치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잔존치조제와의 관계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인공치 재배열을 하여 환자의 주소를 해결하여 주었고 기능적, 심미적으로 환자에게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본 증례를 통하여 총의치 제작에 있어 wax denture상에서 neutral zone을 인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여겨져서 이번 기회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